

歸路에는 中腹에 자리잡은 第二塔에 이르러 夕陽에 홀로 앉아 여러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읍니다. 果然「산치」는 期待에 어긋남이 없었읍니다. 우리나라 佛塔 研究에 關心을 모아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었으며 새로운 着眼點 과 意欲을 얻은 것도 또한 이곳이었읍니다.

二月二十二日 晩車로 「산치」를 떠나 南下하러 翌日 새벽 Jalgaon에서 下車하였읍니다. 그곳서 첫 배스를 타고 Ajanta를十里거리는 Fardapur宿舎에 이르니 十時 가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二月二十五日에 이르러 三日間 Ajanta를 來往하면서 여러 石窟을 仔細히 볼 수 있었읍니다. 낮은 山中에 半月形의 岩壁이 돌고 있는 紀元後부터 八世紀에 이르는 사이에 約三〇의 大小石窟을 마련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佛敎窟뿐입니다. 이들은 塔窟과 僧院窟로 區別되는 바 그들에서 歷代의 變遷相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窟內에는 豫想보다도 많은 壁畫가 保存되어 있었읍니다. 初期石窟은 中央에 塔을 奉安하였을 뿐인데 時代가 나려올수록 塔身뿐 아니라 僧院窟의 奧壁이나 周圍에 佛像彫刻이 漸增한 것은 時代에 따르는 禮拜對象의 變遷相을 보이는 것이었읍니다. 이같은 趨勢는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도 同一한 經遇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아잔타」는 內陸이며 周圍에는 山林이 없어 氣溫이 높았으므로 午後에는 宿舎에서 쉬기로 하였읍니다. 第二次의 旅行은 山中의 石窟과 僻地의 伽藍址 特別塔址가 重要한 目標이기에 健康에는 特別 留意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우기 南下함에 따라 더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二月二十六日 아침 六時 첫 배스便으로 「아우랑가바트」를 經由하여 午後에 「에로라」石窟에 이르렀읍니다. 이곳 宿舎는 石窟頂上에 자리잡고 있어 西쪽으로 展開하는 大平原의 眺望은 참으로 壯觀이었읍니다. 石窟은 모두 西向하였으며 延長二km가 넘는 丘陵에 「佛敎」·「힌두」·「제인」의 三敎窟이 連續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紀元後五—八世紀의 開鑿이라고 합니다. 佛敎窟은 南쪽에 있어 合計十二窟인 바 그중에서도 十號의 塔院이나 十一·十二號의 三層窟은 特別히 注目할 하였읍니다. 이 三層의 兩窟은 서로 隣接하고 있어 規模도 거의 같사오나 佛像彫刻은 十二窟上層 周壁의 佛菩薩이 우수하였읍니다. 特別히 觀音像과 七佛坐像의 配置는 우리나라 佛敎와의 關聯에서 例컨대 戰災로 소각된 五臺山月精寺의 七佛寶殿을 聯想케 함도 있었읍니다. 同時에 이 三層 兩窟은 아마도 懸超가 기록한 「三重作樓」임을 틀림없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었읍니다. 規模가 큰 三層窟은 印度의 많은 石窟中이 「에로라」에서 볼 수 있을 뿐이는데 懸超가 南印 길에서 山

中의 一大事를 찾아 「非人所作. 竝鑿山爲柱. 三重作樓. 四面方圓三百餘步」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懸超가 記錄한 唯一의 石窟이 아마도 이곳 「에로라」의 兩大 三層窟로 생각되오니 그곳에 오를 때마다 깊은 感懷를 느낄 수 있었읍니다. 佛敎窟以外에도 「힌두敎」에 屬하는 「가이라사」 「岩石祠院」나 「제인敎」의 數窟도 規模와 像設에서 代表的인 造型이었읍니다. 이곳에서도 三日間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매우 不足함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四月二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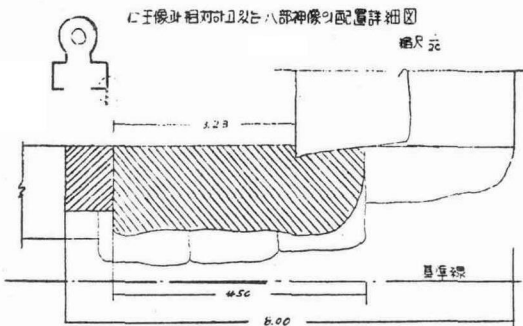
石窟庵通信(八)

鄭 明 鎬

石窟庵入口에 屋蓋와 門을 具備한 木造建築物를 建築함에 있어 入口左右의 石築을 解體하기로 決定되어 一九六二年 十月二十八일부터 年末까지와 一九六三年 一月十一일부터 二月十九일까지의 二次에 걸친 作業으로 入口左右의 八部神像의 裏面に 附着되었던 石築 및 풍크리트를 完全히 除去하였다. 이 作業으로 仁王像과 서로 相對하고 있는 八部衆像의 配置와 構造方法이 밝혀졌다(詳細圖는 別紙와 같다)

이와 同時에 石窟前方과 周圍石築은 在來式으로 築造하기 爲하여 佛國寺 石築構造에 對한 實測(六一·一〇·二四—一〇二)과 佛國寺 石築에서 使用되고 있는 바와 같은 巨石의 自然石이 必要함으로 그 採取運搬作業이 始作되어 一九六二年 年末까지 約二百個 今年 二月二十일까지 豫定量 四百個의 採取運搬을 마쳤다.

또한 三月一日부터 十日까지는 窟內 諸像들의 彫刻表面에 排出하고 있는 鹽化나트륨(NaCl)의 白粉의 作用으로 諸彫刻像의 表面이 侵蝕되어 있는 것을 막기 爲하여 攝氏五十度程度의 물로서 澗



1962年度氣象狀況表

(石窟庵)

區分		1	2	3	4	5	6	7	8	9	10	11	12	全年平均
窟內	平均溫度 C°	5.7	6.7	7.3	8.4	13.4	16.5	20.3	22.4	19.1	12.6	8.8	3.7	12.1
	最高 " C°	7.7	9.3	11.5	13.1	17.9	19.6	26.9	24.9	23.1	18.8	11.9	5.0	15.8
	同起日	18	23	13	22.23	30	17	26.27	6	1	3	2	2	
	最低溫度 C°	2.7	3.8	3.0	3.6	10.1	14.5	17.1	20.4	16.0	4.0	2.9	1.3	83
	同起日	28	14	27	5	5	4.6	1	30	30	15	30	31	
	平均濕度 %	62.7	63.7	61.2	76.0	67.3	79.9	92.9	86.5	85.6	76.7	75.1	74.8	75.2
窟外	平均溫度 C°	—	—	2.0	8.3	15.6	17.1	21.7	22.1	17.1	11.5	4.8	1.3	12.2
	最高 " C°	—	—	14.5	21.2	28.7	27.2	31.1	29.4	25.8	23.2	17.1	10.8	22.9
	同起日	—	—	14	22	30	17	18	13	1	3	14	25	
	最低溫度 C°	—	—	-9.0	-7.0	7.0	11.5	15.6	16.6	9.6	-0.6	-7.9	-10.6	2.5
	同起日	—	—	17	4	17	3	7	24	26	15	23	31	
	平均濕度 %	—	—	—	64.7	59.2	78.0	89.4	84.3	86.9	78.3	74.5	68.7	76.0
窟內蒸發總量 mm	—	—	—	—	—	—	—	5.1	7.3	19.0	15.5	13.3	12.0	
窟外 " mm	—	—	—	—	—	—	—	130.1	85.1	79.5	43.4	45.4	76.7	
降水總量 mm	—	—	22.4	79.8	42.7	78.2	148.8	338.2	274.8	42.5	109.7	12.4	115.0	
降水日數	—	—	6	11	7	13	15	16	19	8	12	6	11	
曇天 "	—	—	1	11	10	17	15	14	14	6	11	6	11	
快晴 "	—	—	11	12	13	2	3	7	2	11	6	14	8	
霧 "	—	—	5	5	7	9	17	9	15	5	8	2	8	
雪 "											3	4		
霜 "										1	1	13		
結冰 "											11	24		
最多風向								ENE	E	SEE	ESE	ESE	ESE	
平均風速 m/s								1.2	1.0	1.1	1.8	1.6	1.3	
初終雪起日											初21			
初終霜起日											初15			
初終冰起日											初15			
窟內外平均較差 C°	—	—	5.3	2.3	2.5	1.7	2.0	0.8	2.2	1.1	4.3	3.2	2.5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아내는作業을 하였는데 一回 十分씩 三回 洗滌하였. 며 含有物을 實驗키 爲하
 여 標本을 採取 化學研究所와 서울大學에 分析을 依頼한 豫定이다.

氣象實測은 繼續되고 있으며 窟內의 平均 溫度差는 攝氏 約十度程度인데 一九六二年 一年間의 氣象狀況은 別紙와 같다.

續 卅一之

◎ 高裕燮 著 「朝鮮美術史及美學論攷」 印刷中

右論攷는 故 又玄 高裕燮先生의 遺稿集인 과 同人 黃壽永教授가 向印直前에 原稿의 最終整理를 끝내어 通文館에 넘긴以後 同人들 의 校正을 거쳐 印刷가 進行中인데 四月末—五月初頃에는 發刊될 豫定이다. 李丙燾博士序文 第一部 一九篇、第二部 十篇總二九篇에引得等總四百面이며 目次는 다음과 같다.

(第一部) 一、朝鮮古代美術의 特色과 그 傳承問題 二、佛教美術에 對하여 三、朝鮮美術과 佛教 四、藥師信仰과 新羅美術 五、高麗時代의 繪畫의 外國과의 交流 六、僧鐵關과 釋中庵 七、東洋畫와 西洋畫의 區別 八、朝鮮塔婆槪要 九、朝鮮의 塔塔에 對하여 十、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 一一、「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의 補 一二、佛國寺의 舍利塔 一三、養怡亭과 香閣 一四、高麗陶磁와 李朝陶磁 一五、美術의 韓·日交涉 一六、開城博物館陳列品解說 一七、吳道玄 一八、顯愷之一九、正倉院御物觀記

(第二部) 一、美學概論 二、美學의 史의 概觀 三、現代世界美術界의 歸趨 四、美의 時代性과 新時代藝術家의 任務 五、形態美의 構成 六、現代美의 特性 七、「알로」의 模倣說 八、「游於藝」 九、郷土藝術의 意義 十、協展觀評

新昌里 甕棺群 發掘調査

金 元 龍

—— 第四卷 第五號 通卷三十四號 ——

全南 光山郡 飛鵝面 新昌里에 있는 甕棺群은 一九六一年 潭陽郡在任 梁會采氏가 道路邊崖面에 露出되어 있는 것을 發見한 後 寫眞을 보내주어 알게 된 것인데 이번에 그 墓地의 一部를 發掘調査하였다.

第四卷 第五號 通卷三十四號

發掘은 四月 十五

日부터 二十三日까

지에 걸쳐筆者가 서

술大文理大考古人類

學科 第三學年學生

九名과 함께 作業하

였으며 俞門龍氏가

實測을 擔當하였다.

遺蹟地는 光州西

北方 七km地點 光州

——長城 國道 바로

路邊에 있는 臺地며

이 臺地南方에는 榮

山江流域의 平野가

展開되고 江津너로

光州市와 對하고 있

다. 이 遺蹟地는 標

高一〇〇m 程度의

秃山의 山脚이 南쪽

으로 緩傾하며 陂고

있는 尖端이며 여기를 道路가 지나가고 路面으로부터 二—三미터 程度

의 崖面을 만들고 있다. 여기 土壤은 붉은 粘土이며 發掘地點은 보리밭

으로 되어 있지만 其他地域은 잔디에 덮히고 鄭氏門中의 墓地로 되어 있

다.

甕棺이 묻혀 있는 總面積은 地表에 散亂된 破片 및 試掘坑에 依하면 最小 約四〇m 平方을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發掘面積은 東北四m 南北二十八m로서 道路面에 가까이 道路와 平行하는 長方形區域이 있으며 面積안에서 都合 五十四개의 甕棺이 發見되었다. 이들은 모두 現 地表下三—四〇cm 程度의 깊이에 粘土層을 바닥으로 하고 水平位置(그러

